「동사수창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ongsasuchangrok*

박 문 열(Moon-Year Park)*

목 차

1. 서 론
2. 통신사
3. 영조 계미(1763)년의 통신사절
4. 『동사수창록』의 형태와 내용
5. 『동사수창록』의 작가별 시편
6.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영조 39(1763)년에 파견된 통신사의 『동사수창록(東槎酬唱錄)』에 수록된 시편들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1) 통신사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공식적 외교사절로, 통신사절에 참여한 인사들은 일본 현지에다 서화・시문 등 많은 작품을 남겼을 뿐 아니라 귀국 후 일본에서 겪은 견문기록을 남겨 외교적인 역할 및 문화교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2) 「동사수창록」에는 4제에 걸쳐 조엄・이인배・김상익・남옥・성대중・원중거・김인겸・홍선보 등 8인의 도합 28수의 수창 시편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시편들은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과 일본의 사정과 회한 및 감회 등을 읊은 것으로 특히 작가들이 친필로 서사하고 낙관한 것을 후일에 장첩한 것이다.

(3) 「동사수창록」은 시편들의 내용과 작가 친필본임을 고려할 때,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the *Dongsasuchangrok*.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ongsinsa refers to diplomatic envoys of Joseon who were officially dispatched to Shogun. Those who participated in Tongsinsa not only produced and left many pieces of paintings and literary works in Japan, but also wrote their experience from that foreign country when they returned to Joseon. These facts indicate that Tongsinsa acted as diplomatic roles and promote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2) *Donsasuchangrok* is a collection of 28 poems under 4 titles which were directly handwritten by eight people. The poems portrayed conditions of Joseon and Japan after the Imjin war and feelings of the writers.

(3) Considering the implication in poems and a feature that the poems were handwritten by the authors, *Dongsasuchangrok* deserves to be designated and preserved as a local cultural asset.

키워드: 통신사, 동사수창록, 조엄, 이인배, 김상익, 남옥, 성대중, 원중거, 김인겸, 홍선보
Tongsinsa, *Dongsasuchangrok*, Jo Eom, Lee In-Bae, Kim Sang-Ik, Nam Ok, Seong Dae-Jung, Won Jung-Geo, Kim In-Gyeom, Hong Seon-Bo

---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parkmoon@cju.ac.kr)
논문접수일자: 2012년 10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1월 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77-98,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077〕

www.kci.go.kr

1. 서 론

통신사[1]는 조선에서 일본의 막부장군(幕府將軍)에게 파견하던 공식적인 외교사절이다. 실제로 조선은 개국 이래 무려 수십 차에 걸쳐 일본의 막부에 통신사를 파견한 바 있다.

영조조(英祖朝)에는 영조 23(1747)년에 홍계희(洪啓禧)・남태기(南泰耆)・조명채(趙命采) 등 삼사(三使)로 구성된 통신사를 파견한 바[2] 있으며, 영조 39(1763, 계미)년에는 조엄(趙曮)・이인배(李仁培)・김상익(金相翊) 등을 삼사로 447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한 바[3][4] 있다.

최근 필자는 영조 39(1763)년에 파견된 통신사사절단 중의 조엄・이인배・김상익・성대중(成大中)・남옥(南玉)・김인겸(金仁謙)・원중거(元重擧)・홍선보(洪善輔) 등이 사행노정 중에서 서로 수창(酬唱)한 시편을 각각 친필로 서사하여 장첩(裝帖)한『동사수창록(東槎酬唱錄)』[5]을 목견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영조 39(1763)년에 파견된 통신사의 개괄과『동사수창록』에 수록된 통신사들의 시편의 분석을 통하여 그 학술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를 고구함으로써,『동사수창록』의 문화재지정을 위한 기초연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통신사

조선에서 일본의 막부장군에게 파견한 외교사절로는 일찍이 고려 우왕 3(1377)년에 정몽주(鄭夢周)가 일본에 사행한 바[6] 있고 조선 정종 원(1399)년에 최운사(崔云嗣)가 일본에 보빙한 바[7] 있으며, 태종 원(1401)년 봄에는 박돈지(朴敦之)가 봉사하였던 것[8][9]으로 전

1) 通信使: 조선 태종 4(1404)년에 朝日間에 교린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외교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에서 각각 사절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사절을 '통신사'라 하고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하는 사절을 '日本國王使'라 하였다.

2)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英祖 23年 11月 28(甲寅)日條. "遣通信上使洪啓禧 副使南泰耆 從事官曹命采 往使日本."

3)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英祖 39年 7月 24(己卯)日條. "上召見通信使趙曮・李仁培・金相翊等 諭曰 交隣重事也 書下飭敎曰 違約條而貽羞朝廷者 買奇巧而潛射重利者 與彼飮而敢犯邦禁者 竝令使臣先斬以聞."

4)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英祖 39年 8月 3(丁亥)日條. "通信正使趙曮 副使李仁培 從事官金相翊辭陛 上召見之 親誦二陵松栢句 興感者久之 以御筆書下好往好來四字三幅 分賜之 慰諭以送."

5)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筆寫(親筆)本. [鳥嶺, 吉原]: [趙曮 等筆寫].) 大田先史博物館所藏.

6) 鄭麟趾 外, [發行年不明]. 景仁文化社, 1981.『高麗史』.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辛禑 3年 9月條. "… 遣前大司成鄭夢周 報聘于日本 且請禁賊 書曰 竊念本國 北連大元 西接大明 常軍官 以充守禦 於海寇 只令沿海州郡 把截防禦 賊徒偵候 乘間入侵 燒毁民廬 奪掠人口 及覩官軍 隨騎船逃匿 爲害不小 今蒙大將軍言及諄諄 又於弘長老 備厚意 其益圖之."

7)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定宗 1年 8月 26(癸亥)日條. "遣戶曹典書崔云嗣 報聘于日本."

8)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世宗 20年 2月 19(癸酉)日條. "禮曹進日本圖 初檢校參贊朴敦之奉使日本 求得地圖而還 仍誌其圖下 以贈禮曹判書許稠 稠遂倩工粧績以進 … 日本氏國于海中 距我邦遼絶 而其疆理之詳 莫之能究 建文三年春 檢校參贊議政府事臣朴敦之奉使是國 求見其地圖 而備州守源詳助出視

www.kci.go.kr

해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통신사는 태종 4(1404)년에 조선과 일본과의 교린관계가 성립되면서 조선의 국왕과 일본의 막부장군이 각기 양국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외교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사절을 파견하면서 시작된 것[10]이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사절의 명칭은 보빙사(報聘使)·회례사(回禮使)·회례관(回禮官)·통신관(通信官)·경차관(敬差官)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후일에 이르러 조선에서 파견하는 사절을 '통신사'라 하고 막부장군이 파견하는 사절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통신사의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태종 13(1413)년에 박분(朴賁)을 정사로 하는 사절단이었으나[11] 중도에 정사의 병으로 중지되고 말았으며,[12] 그 뒤 통신사의 파견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세종 10(1428)년에 경도(京都)에 파견되었던 정사 박서생(朴瑞生)의 사절단으로[13] 이는 최초의 통신사라 할 수 있다.[14]

〈표 1〉 통신사의 파견

番號	年度	干支	王朝	正使	副使	書狀官	期間	備考
01	1413	癸巳	太宗 13	朴賁	-	-	[1201-0201 停止]	15)16)
02	1420	庚子	世宗 02	宋希璟	-	-	[+115-0113]	17)
03	1428	戊申	世宗 10	朴瑞生	李藝	金克柔	[1207-1203]	18)
04	1443	癸亥	世宗 25	卞孝文	尹仁甫	申叔舟	[0221-1013]	19)
05	1459	己卯	世祖 05	宋處儉	李從實	李覲	[0823-1008 失踪]	20)21)

家藏一本 獨對馬·一岐兩島闕焉 敦之卽令補之 模寫而還 …."

9)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太宗 1年 12月 1(辛未)日條. "… 柳廷顯曰 昔朴敦之·崔云嗣·李養中等皆爲使 必能詩善寫者乃可 …."

10)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太宗 4年 7月 30(己巳)日條. "日本遣使來聘 且獻土物 日本國王 源道義也 日本國防長刺史大內多多良盛見亦獻禮物."

11)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太宗 13年 12月 1(丙午)日條. "遣通信官檢校工曹參議朴賁于日本 令慶尙道都觀察使 給付虎豹皮十張·松子十石."

12)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太宗 14年 2月 1(乙巳)日條. "命停日本通信使朴賁之行 初以河崙建白 命賁爲通信使 齎國書禮物 行至慶尙道 至是 政府啓曰 賁旣稱疾不行 … 上曰 領議政之論甚是 遂停賁行."

13)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世宗 10年 12月 7(甲申)日條. "日本通信使大司成朴瑞生 副使大護軍李藝 書狀官前副校理金克柔發行 賀新主嗣位 致祭前主."

14) 任守幹 外, [筆寫年不明].『東槎日記』. (筆寫本. [筆寫地不明]: [筆寫者不明].) 卷乾. '前後通信使座目'條.

15)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太宗 13年 12月 1(丙午)日條. "遣通信官檢校工曹參議朴賁于日本 令慶尙道都觀察使 給付虎豹皮十張·松子十石."

16)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太宗 14年 2月 1(乙巳)日條. "命停日本通信使朴賁之行 …."

17)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世宗 2年 閏1月 15(甲申)日條. "遣仁寧府少尹宋希璟 報聘于日本 …."

18)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世宗 10年 12月 7(甲申)日條. "日本通信使大司成朴瑞生 副使大護軍李藝 書狀官前副校理金克柔發行 賀新主嗣位 致祭前主."

19)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世宗 25年 2月 21(丁未)日條. "日本通信使僉知中樞院事卞孝文 副使上護軍尹仁甫辭 …."

www.kci.go.kr

06	1479	己亥	成宗 10	李亨元	李季仝	金 訢	[0401-0912 病死]	22)
07	1590	庚寅	宣祖 23	黃允吉	金誠一	許 筬	[0306-0000]	23)
08	1596	丙申	宣祖 29	黃 愼	朴弘長	-	[0601-1205]	24)25)
09	1606	丙午	宣祖 39	呂祐吉	慶 暹	丁好寬	[1201-0719]	26)
10	1617	丁巳	光海 09	吳允謙	朴 梓	李景稷	[0117-1113]	27)
11	1624	甲子	仁祖 02	鄭 岦	姜弘重	辛啓榮	[0820-0326]	28)
12	1636	丙子	仁祖 14	任 絖	金世濂	黃 㞚	[0811-0309]	29)
13	1646	癸未	仁祖 21	尹順之	趙 絅	申 濡	[0220-1108]	30)
14	1655	乙未	孝宗 06	趙 珩	兪 瑒	南龍翼	[0420-0228]	31)
15	1681	壬戌	肅宗 08	尹趾完	李彦綱	朴慶後	[0508-1116]	32)
16	1711	辛卯	肅宗 37	趙泰億	任守幹	李邦彦	[0515-0309]	33)
17	1719	己亥	肅宗 45	洪致中	黃 璿	李明彦	[0411-0124]	34)
18	1747	丁卯	英祖 23	洪啓禧	南泰耆	趙命采	[1128-+730]	35)

20)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世祖 5年 8月 23(壬申)日條. "以僉知中樞院事宋處儉爲日本國通信使 行護軍李從實爲副 宗簿注簿李覲爲書狀官 齎禮物 與秀彌偕往 又令齎紬三百匹・白金五百兩 求買我國所無書籍等物."

21)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世祖 6年 1月 3(辛巳)日條. "… 日本國通信使宋處儉帶去船軍韓乙齎對馬州太守宗盛職・守護代官宗右馬助盛直書契來啓 處儉與副使李宗實・書狀李覲等百餘人 分騎三船 十月初八日曉 與日本國王使臣船二艘・對馬島倭船二艘俱發 日午遭大風 處儉・覲等所騎船漂流不知所之 宗實等九十餘人所騎船 中流覆沒 宗實等五人扶得木板漂泊 亦不知所之 唯臣攀一板得不死 翼日漂到對馬島 凍餒濱死 告蒙島主宗盛職藥餌調護 又給衣笠 留島數月 令皮古汝文帶還 …."

22)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成宗 10年 4月 1(丁亥)日條. "御宣政殿 引見日本國通信使李亨元・副使李季仝・書狀官金訢及軍官通事等 經筵官及承旨 入侍 …."

23)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宣祖 23年 3月 6(丁未)日條. "日本通信使黃允吉副使金誠一 書狀官許筬發行."

24)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宣祖 29年 11月 3(乙未)日條. "… 李宗城爲上天使 楊邦亨爲副使 通信使黃愼也 …."

25)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宣祖 29年 6月 1(丁酉)日條. "以敦寧都正黃愼・前府使朴弘長 爲通信正・副使 …."

26)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宣祖 39年 12月 1(乙未)日條. "遣回答使呂祐吉・慶暹 書狀官丁好寬等入日本 …."

27)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光海君 9年 1月 17(癸未)日條. "回答使落點 以吳允謙爲回答使 朴梓爲副使 從事官李景稷爲從事官…."

28)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仁祖 2年 5月 11(甲子)日條. "遣鄭岦・姜弘重・辛啓榮 回答于日本 …."

29)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仁祖 15年 3月 9(戊申)日條. "通信使任絖・副使金世濂・從事官黃㞚 還自日本 …. "

30)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仁祖 21年 1月 6(辛丑)日條. "以兵曹參議尹順之爲通信上使 典翰趙絅爲副使 吏曹正郎申濡爲從事官."

31)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孝宗 6年 4月 20(甲戌)日條. "日本通信使趙珩・副使兪瑒・從事官南龍翼辭朝 面諭以遣之 …."

32)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肅宗 8年 5月 8(乙卯)日條. "通信使尹趾完 副使李彦綱 從事官朴慶後如日本."

33)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肅宗 37年 5月 15(癸卯)日條. "通信使趙泰億 副使任守幹 從事官李邦彦辭陛 命引見 …."

34)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肅宗 45年 4月 11(癸丑)日條. "通信正使洪致中副使黃璿 從事官李明彦等 辭赴日本 世子召見 …."

www.kci.go.kr

19	1763	癸未	英祖 39	趙 儼	李仁培	金相翊	[0803-0708]	36)
20	1811	辛未	純祖 11	金履喬	李勉求	金善臣	[0212-0726]	37)

통신사를 파견하는 목적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주로 왜구의 금지요청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강화와 포로들의 쇄환 및 일본국정의 탐색이었다. 또한 인조 14(1636)년 이후로는 막부장군의 습직을 축하는 것이 임무였다.[38]

통신사를 파견하는 절차는 일본의 새로운 막부장군의 승습이 결정되면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막부의 명령을 받아 '통신사청래차왜(通信使請來差倭)'를 조선에 파견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중앙관리 3인 이하로 정사(正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 從事官) 등을 임명하고 통역관(通譯官)・군관(軍官)・병사(兵士)・의원(醫員)・서가(畵家)・인쇄공(印刷工)・악공(樂工)・사공(沙工) 등의 학문・기술・예술 등의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하여 300-500명으로 사절단을 편성하였다.

통신사의 노정은 한성을 출발하여 부산까지는 육로로 간 뒤 부산에서 대마도주의 안내를 받아 해로를 이용하여 대마도를 거쳐 하관(下關)을 통과하여 일본 각 번의 향응을 받으며 대판(大阪)의 정포(淀浦)에 상륙하였으며, 그 뒤로는 육로로 경도(京都)로 갔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기에는 경도에 막부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경도가 목적지였으나, 조선시대 후기에는 막부장군이 동경(東京)에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가 동경으로 바뀌었다.

통신사 일행이 통과하는 객사에서는 한시문과 학술의 필담창화라고 하는 문화의 교류가 성대하였으며, 특히 통신사에 대한 화려한 접대는 일본의 재정을 압박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통신사가 막부장군에게 국서를 전달하는 데는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그들은 방문하는 곳마다 서화・시문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또한 통신사에 참여한 인사들은 귀국 후 일본에서 겪은 각가지 견문들을 여러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 당시 양국 간의 외교적인 역할 및 문화교류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영조 계미(1763)년의 통신사절

영조 39(1763, 계미)년의 통신사절은 일본의 관백(關白)인 원가중(源家重)[39]이 퇴휴하고 그의 아들인 원가치(源家治)[40]가 새로이 관백

35)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英祖 23年 11月 28(甲寅)日條. "遣通信上使洪啓禧 副使南泰耆 從事官曹命采 往使日本."

36)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英祖 39年 8月 3(丁亥)日條. "通信正使趙嚴 副使李仁培 從事官金相翊辭陛 上召見之 …."

37)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純祖 11年 2月 12(辛卯)日條. "召見通信正使金履喬 副使李勉求 辭陛也 …."

38)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仁祖 14年 7月 23(乙丑)日條. "完城君崔鳴吉上箚曰 交隣之道 固當一遵定式 不可攙越 而如或事與時異 勢須變通 則不必膠守舊例 要之保國安民而已 近因日本事機稍異前日 不得不爲彌縫之計 如馬才之送・書式之改 靡不曲循馬島之請 而獨於禮單一事 未蒙准許 臣竊以爲非計也 當初本國 與家康結和時 家康新得志 盡反秀吉所爲 求和之意 出於至誠 專以和事 委諸島主 …."

www.kci.go.kr

을 계승하면서 구호(舊好)의 수교를 요청하자 조선 조정에서 허락한 것이다.[41]

영조 39(1763)년 8월 3일에 사조(辭朝)하고 이듬해(1764) 2월 16일에 강호(江戶)에 도착한 뒤 2월 27일에 신임 관백인 원가치에게 국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동(1764)년 3월 11일에 강호로부터 회정하여 6월 22일에 부산에 도착한 뒤 7월 8일에 경희궁(慶熙宮)에 들어가 복명하였다.

이 사행은 원래 영조 38(1762)년에 서명응(徐命膺)・엄린(嚴璘)・이득배(李得培) 등을 삼사로 차출하였으나, 영조 39(1763)년 8월에 출행할 무렵 다른 일로 인하여 조엄・이인배・김상익 등의 삼사로 새로 제수하여 마치 전쟁터에서 장수를 바꾼 것과 같았으나, 자제군관(子弟軍官) 이외의 원역(員役) 이하는 원래 차출해서 정하였던 그대로 하여 발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42]

3.1 사절단

조엄의 저술인『해사일기(海槎日記)』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영조 39(계미, 1763)년의 통신사절단은 정사 조엄과 부사 이인배 및 종사관 김상익 등의 삼사를 비롯하여 무려 48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사절단이었다.[43]

삼사 이외에 명무군관(名武軍官)은 김상옥(金相玉)을 비롯한 10인이고 자제군관[44]은 이매(李梅)를 비롯한 5인이며, 장사군관(壯士軍官)은 임춘흥(林春興)과 조신(曹信) 등 2인이었다. 제술관은 남옥이고 서기는 성대중과 원중거 및 김인겸 등 3인이었다.

역관(譯官)은 최학령(崔鶴齡)을 비롯한 12인이고 양의(良醫)는 이좌국(李佐國)이며, 의원(醫員)은 남두민(南斗旻) 등 2인이었다. 사자관(寫字官)은 홍성원(洪聖源)과 이언우(李彦佑) 등 2인이고 화원(畫員)은 김유성(金有聲)이었다.

별파군(別破軍)・마상재(馬上才)・전악(典樂) 등은 각 2명이고 이마(理馬)는 1명이었으며, 기선장(騎船將)・복선장(卜船將)・도훈도(都訓導) 등은 각 3명이었다. 반인(伴人)은 3명이고 향서기(鄕書記)는 2명이며, 예단직(禮單直)은 1명이었다. 반전직(盤纏直)과 청직(廳直)은 각 3명이었다. 소동(小童)은 16명이고 소통사(小通事)는 10명이며, 사노자(使奴子)는 6명이었다.

급창(及唱)과 도척[45]은 각 6명, 방자(房子)

---

39) 德川家重(1711-1761): 江戶幕府 제9대의 장군으로 源吉宗의 장남이며 幼名은 長福丸이다. 1745년에 將軍이 되어 1760년까지 在職하였다.

40) 德川家治(1737-1786): 강호막부 제10대 장군으로 源家重의 장남이며 幼名은 竹千代이다. 1760년에 將軍이 되어 1786년까지 在職하였다.

41) 趙曮. 1763.『海槎日記』. (筆寫本. [筆寫地不明]: [筆寫者不明].) 卷1. 癸未(1763)年 8月 3(丁亥)日條. "上之卽位三十九年癸未八月初三日丁亥朝陰晩晴 平明辭朝 次良才驛 … 是役也 蓋因日本國關白源家重退休 其子家治代立 請修舊好 朝廷許之 …."

42) 趙曮. 1763.『海槎日記』. 卷1. 癸未(1763)年 8月 3(丁亥)日條. "… 昨年以徐命膺嚴璘李得培差三使 臨行因他事幷革職 一皆新除 殆同臨陣易將 故子弟軍官外員役以下 一從前使之已差 …."

43) 趙曮. 1763.『海槎日記』. 使行名單・路程記. '三使一行錄'條. "… 三行員役合四百七十七名."

44) 子弟軍官: 自辟軍官이라고도 하며, 使行의 正使・副使 등이 子弟・親知를 뽑아 朝廷의 承認을 얻어 隨行하나, 特任이 있는 것이 아니라 見聞을 넓히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www.kci.go.kr

는 3명, 각원노자(各員奴子)는 46명, 악공(樂工)은 18명, 취수(吹手)는 18명, 나장(羅將)은 18명, 기수(旗手)는 8명, 포수(砲手)는 6명, 사공(沙工)은 24명이었다. 그리고 격군[46]은 기선(騎船) 138명과 복선(卜船) 90명 등 228명이었다.

이와 같이 영조 39(1763)년의 사행은 조엄・이인배・김상익 등의 삼사와 자제군관 3인을 포함한 도합 인원은 483명이었으며, 삼사와 자제군관 3인을 제외한 원역(員役)만도 무려 477명[47]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절단이었다.

3.2 사행노정

영조 23(1747)년 이전까지의 통신사의 사행노정은 삼사가 각각 다른 노정을 택할 수 있었으나, 영조 39(1763)년의 사행노정은 종전과 달리 동일한 조정이었다.[48]

조엄 저술인 『해사일기』에 나타나는 영조 39(1763)년의 통신사절단은 8월 3일에 경희궁(慶熙宮)에서 출정하여 무려 192일 동안의 순행을 거쳐 이듬해(1764) 2월 16일에 일본 강호(江戶)의 객관에 도착하였다.[49]

영조 40(1764)년 2월 16일에 강호의 객관에 도착한 통신사절단은 23일 동안 강호에 머무르면서 사행사(使行事)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동년 3월 11일에 강호의 객관을 출발하여 무려 117일 동안의 순행을 거쳐 7월 8일에 경희궁에 도착하였다.[50]

노정을 통해서 볼 때, 영조 39(1763)년의

---

45) 刀尺: 通信使節團의 飮食 장만을 위하여 딸려 보내던 하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46) 格軍: 곁군의 取音으로 沙工의 일을 돕는 水夫의 하나이다. 格人이라고도 한다.

47) 趙曮, 1763.『海槎日記』. 使行名單・路程記. '三使一行錄'條. "… 三行員役合四百七十七名."

48) 趙曮, 1763.『海槎日記』. 卷1. 癸未(1763)年 8月 3(丁亥)日條. "… 從前三使臣 分路而行 戊辰信使之回也 自上命以此後則往來同路矣 毋論支供之難易與否 使事之同議 客懷之相慰 比分路果有勝矣 …."

49) 趙曮, 1763.『海槎日記』. 使行名單・路程記. '路程記'條. (月日+滯留日數)
▢ 出程路: 漢城 慶熙宮(0803) - 京畿道 良才驛村(0803) - 龍仁(0804) - 竹山(0805) - 忠淸道 崇善(0806) - 忠州(0807) - 安保驛(0808) - 慶尙道 聞慶(0809) - 幽谷驛(0810) - 醴泉(0811) - 安東(0812+1) - 義城(0814) - 新寧(0815) - 永川(0816) - 慶州(0817) - 蔚山(0818) - 龍堂倉(0819) - 東萊(0820+1) - 釜山(0822+42) - 對馬島 佐須浦(1006+4) - 大浦(1011+7) - 西泊浦(1019+6) - 琴浦(1026) - 府中(1027+15) - 壹岐島 風本浦(1113+18) - 筑前州 藍浦(1203+22) - 長門州 南浦(1226) - 赤間關(1227+4) - 周防州 室隅(0102) - 上關(0103+1) - 津和(0105) - 安藝州 加老島(0106+2) - 鎌刈(0109) - 備後州 忠海島(0110) - 韜浦(0111) - 備前州 日比(0112) - 牛窓(0113) - 播摩州 室津(0114+4) - 攝津州 兵庫(0119) - 大坂城(0120+5) - 河內州 平方(0126) - 山城州 淀浦(0127) - 西京(0128) - 近江州 森山(0129) - 彦根(0130) - 美濃州 大垣(0201+1) - 尾長州 鳴護屋(0203) - 三河州 岡崎(0204) - 吉田(0205) - 遠江州 濱松(0206) - 懸川(0207+1) - 駿河州 藤枝(0209) - 江尻(0210) - 吉原(0211) - 伊豆州 三島(0212) - 相模州 小田原(08213) - 藤澤(0214) - 武藏州 品川(0215) - 江戶客官(0216+22・0310)

50) 趙曮, 1763.『海槎日記』. 使行名單・路程記. '路程記'條. (月日+滯留日數)
▢ 回程路: 武藏州 江戶 客官(0311) - 品川(0311) - 相模州 藤澤(0312) - 小田原(0313) - 伊豆州 三島(0314+2) - 駿河州 吉原(0317+2) - 江尻(0320) - 藤枝(0321+3) - 遠江州 懸川(0325) - 濱松(0326) - 三河州 吉田(0327) - 岡崎(0328) - 尾長州 鳴古屋(0329) - 美濃州 大垣(0330) - 近江州 彦根(0401) - 森山(0402) - 山城州 西京(0403) - 河內州 平方(0404) - 攝津州 大坂城(0405+30) - 河口(0506+1) - 攝津州 兵庫(0508+5) - 播摩州 室津(0514) - 備前州 牛窓(0515) - 備後州 韜浦(0516) - 竹原(0517) - 安藝州 鎌刈(0518) - 周防州 上關(0519) - 西口浦(0520) - 長門州 赤間關(0521+2) - 南浦(0524+1) - 筑前州 藍浦(0526+1) - 壹岐島 風本浦(0528+13) - 對馬島 府中(0613+5) - 芳浦(0619) - 西泊浦(0620) - 泉浦(0621) - 慶尙道 釜山(0622+2) - 梁山(0625) -

www.kci.go.kr

통신사절단은 영조 39(1763)년 8월 3일에 경희궁에서 발행하여 이듬해(1764) 7월 8일에 다시금 경희궁에 착환하기까지 332일 동안 무려 1만여 리를 순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조 39(1763)년 10월 6일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강호까지 사행을 마치고 이듬해(1764) 6월 20일에 다시 부산에 환도(還到)까지의 노정은 수로가 3,332리이고 육로가 1,332리로 도합 4,664리였다.[51]

4. 『동사수창록』의 형태와 내용

4.1 『동사수창록』의 형태

『동사수창록』[52]의 형태를 사진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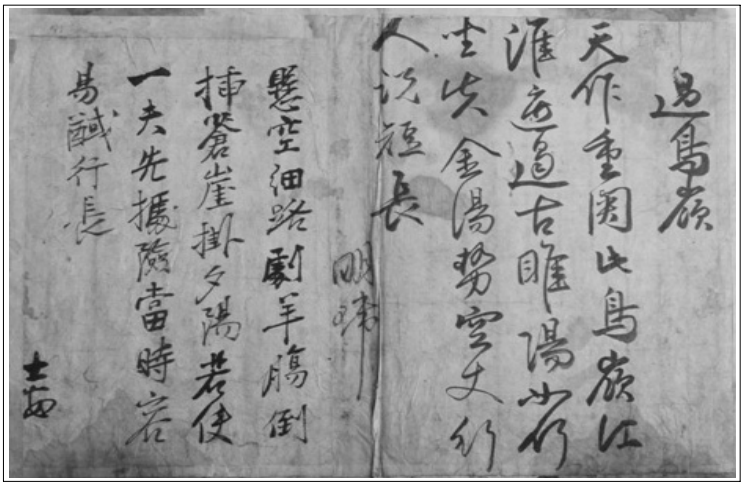
〈사진 1〉『동사수창록』의 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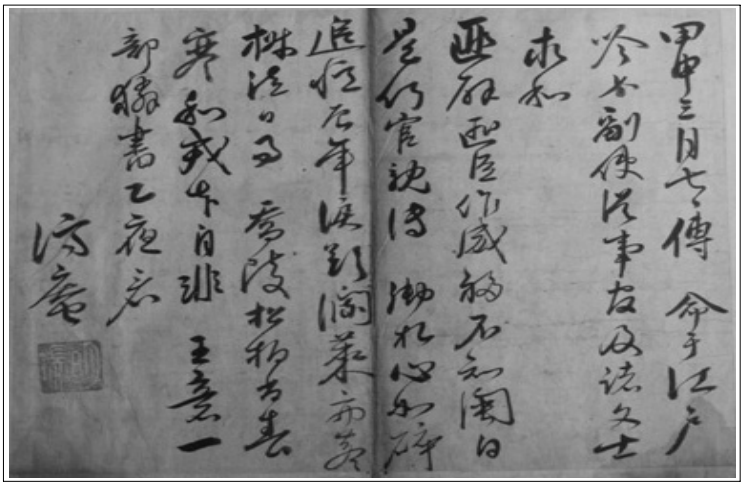
密陽(0626) - 淸道(0627) - 大邱(0628+1) - 仁同(0630) - 尙州(0701) - 聞慶(0702) - 忠淸道 槐山(0703) - 無極驛(0704) - 京畿道 利川(0705) - 慶安驛(0706) - 廣州(0707) - 漢城 慶熙宮(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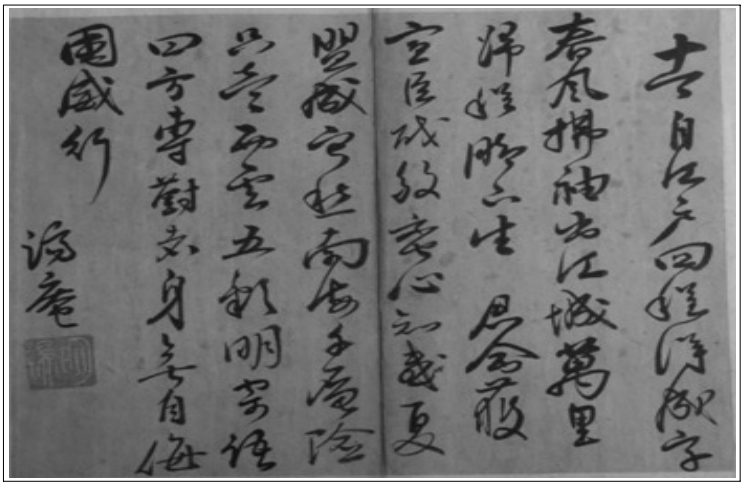
51) 趙曮. 1763.『海槎日記』. 使行名單・路程記. '路程記'條. "對馬島 時麻 佐須浦 沙沙奈 四百八十里 十月初六日 自釜山發船 到泊留館三日 六月二十日還到釜山 … 已上 水路三千三百三十二里 陸路一千三百三十二里."

52) 본 「東槎酬唱錄」은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2012. 06. 22)되었으며, 그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東槎酬唱錄 / 趙曮(1719-1777) 等著. -- 筆寫本. -- [鳥嶺, 吉原] : [趙曮 等筆寫], [英祖 39-40(1763-1764)]. 1冊(25帖) ; 33.0 × 23.5 ㎝. 帖裝.
內容: -〈過鳥嶺〉; 七絶(趙曮・南玉・聖大中・元重擧・金仁謙). -〈甲申三月七日傳命于江戶吟爲副使從事官及諸文士求和〉; 七律(趙曮・李仁培・金相翊・南玉・聖大中・元重擧・金仁謙・洪善輔). -〈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 七律(趙曮・李仁培・金相翊・南玉・聖大中・元重擧・金仁謙・洪善輔). -〈淸見寺次南壺谷韻〉; 五律(趙曮・李仁培・金相翊・聖大中・元重擧・金仁謙・洪善輔).
所藏: 春岡 金英漢先生의 所藏品을 大田先史博物館이 受託으로 所藏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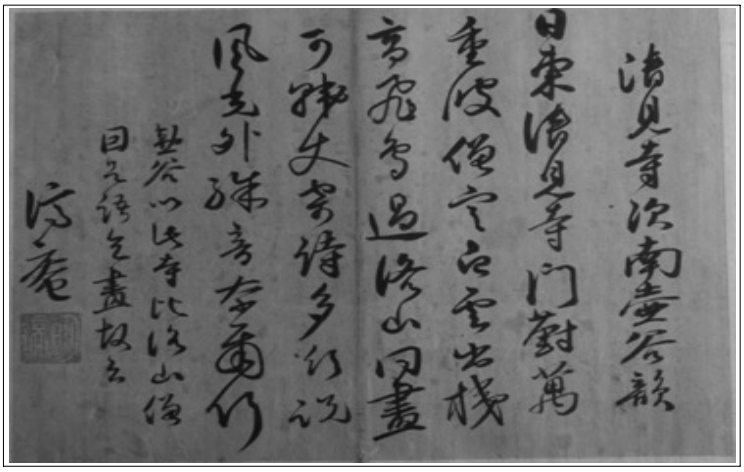
www.kci.go.kr







www.kci.go.kr



4.2『동사수창록』의 수록 내용

『동사수창록』에는 〈과조령(過鳥嶺)〉·〈갑신삼월칠일전명우강호음위부사종사관급제문사구화(甲申三月七日傳命于江戶吟爲副使從事官及諸文士求和)〉·〈십일일자강호회정득성자(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청견사차남호곡운(淸見寺次南壺谷韻)〉 등 4제에 걸친 수창 시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동사수창록』에 수록된 작가와 작가별 시편 수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조령〉은 정사 조엄을 비롯하여 김인겸·원중거·성대중·남옥 등의 칠언절구 1수씩의 시편들로 영조 39(1763)년 8월 9(계사)일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조령을 넘어 문경(聞慶)으로 가는 길에 지은 시편[53]들이다.

〈표 2〉『동사수창록』의 작가별 수록 시편[54]

번호	作 家	生沒年	字	號	過鳥…	江戶…	十一…	淸見…	筆名/印文	備考
01	趙 曮	1719-1777	明瑞	濟谷·濟庵	○	○	○	○	濟庵/明瑞	4
02	李仁培	1716-1774	秀修	迴溪·吉菴	×	○	○	○	迴溪/秀修	3
03	金相翊	1722-1781	仲祐	弦庵·石林散人	×	○	○	○	石林/仲祐	3
04	南 玉	1722-1770	時韞	秋月	○	○	○	×	時韞/秋月	3
05	成大中	1732-1812	士執	醇齋·龍淵	○	○	○	○	士執/龍淵	4
06	元重擧	1719-1790	子才	玄川	○	○	○	○	子才/玄川	4
07	金仁謙	1707-1772	士安	退石	○	○	○	○	士安/退石	4
08	洪善輔	? - ?	聖老	默齋	×	○	○	○	聖老/默齋	3
計	8				5	8	8	7		28

53) 趙曮, 1763.『海槎日記』. 卷1. 癸未(1763)年 8月 初9(癸巳)日條. "朝雨晩陰 踰嶺次聞慶 嶺路泥濘 幾沒人膝 艱辛踰嶺 到聞慶 重尋嶺路 復對嶺民 三載物色 入眼依依 而但愧夫無一惠澤之及民也 三使會于衙軒 觀帿打話 本官宋準明 尙州牧使金聖休 金泉察訪李宗榮 幽谷察訪崔昌國 安奇察訪金濟恭來見 巡營校吏 以道先生 依例來現 鳥嶺有詩二首 是日行五十里."

54)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大田先史博物館所藏.

www.kci.go.kr

〈갑신삼월칠일전명우강호음위부사종사관급지문사구화〉는 정사 조엄을 비롯하여 이인배・김상익・남옥・성대중・원중거・김인겸・홍선보 등의 칠언율시 1수씩의 시편들로 영조 40(1764)년 2월 27(기유)일에 강호에서 관백에게 어명을 전달하면서 지은 시편[55]들이다.

〈십일일자강호회정득성자〉는 정사 조엄을 비롯하여 이인배・김상익・남옥・성대중・원중거・김인겸・홍선보 등의 칠언율시 1수씩의 시편으로 영조 40(1764)년 3월 11일에 강호에서 회정하면서 '성(成)'자를 얻어서 차운(次韻)한 시편[56]들이다.[57]

〈청견사차남호곡운〉은 정사 조엄을 비롯하여 이인배・김상익・남옥・성대중・원중거・김인겸・홍선보 등이 영조 40(1764)년 3월 20(신미)일에 준하주(駿河州) 청견사에서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 1628-1692)의 시 '다(多)'자를 차운한 오언율시 1수씩의 시편[58]들이다. 일찍이 호곡 남용익이 청견사를 강원도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에 비유한 바 있었는데, 청견사의 승려들이 호곡의 시[59]로 인하여 낙산사의 그림을 그려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경련(頸聯)[60]에 언급하여 지은 시편[61]들이다.[62]

이들 각 작자별 친필의 시편들은 조엄의 『해사일기(海槎日記)』〈수창록(酬唱錄)〉에도 그 원문이 수록[63]되어 있다. 『해사일기』는 영조

55) 趙曮, 1763. 『海槎日記』. 卷4. 甲申(1764)年 2月 27(己酉)日條. "朝雨晩陰 留江戶 傳命于關白 … 顧謂副使曰 吾輩今行 依仰國書 七朔陪護之餘 遽爾傳命而歸 使事雖竣 心懷悵然 如有所失 副使曰誠然矣 傳命正堂也 …."

56) 趙曮, 1763. 『海槎日記』. 卷4. 甲申(1764)年 3月 11(壬戌)日條. "朝雨晩陰 自江戶回程 宿品川 … 晡時到品川 館舍恍如昨宿處也 來時國書奉安所 今則去其前日貼紙 改書以御返翰奉安處矣 歷路所見 去時旣錄 歸路不必疊床 只記當日事耳 路中得五律一首 次洪北谷品川韻 又得七律二首 一咏傳命事 一咏回程事也 要副・從使及諸文士和之 …."

57) 『東槎酬唱錄』에는 趙曮・李仁培・金相翊・金仁謙・元重擧・南玉・成大中・洪善輔 등 8인의 七言絶句 1수씩이 수록되어 있으나, 『海槎日記』〈酬唱錄〉에는 製述官 南玉의 "倭宮傳命喚登城 袖裏龍泉吼欲生 人向豚魚猶信及 天於鱗介亦財成 和戎下策慚文武 封越深仁奉聖明 四牡車中忠敬字 由來此道可蠻行" 1수와 軍官 李海文의 "靑春鼓角出江城 淸道天敎細雨生 送客幽禽歌數轉 穿雲歸鶴影雙城 蠻窓午夢排愁穩 驛路晴花照眼明 閑把瑤琴彈喜意 新翻添得日東行" 1수가 더 수록되어 있다.〈趙曮, 1763. 『海槎日記』. 酬唱錄. '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條.〉

58) 趙曮, 1763. 『海槎日記』. 卷4. 甲申(1764)年 3月 20(辛未)日條. "晴 淸見寺中火 宿江尻 … 前進入淸見寺 梅花雖落 嫩綠成陰 異卉多抽新葉 飛瀑益添雨後 寺愈深邃 景多窈窕 綠陰芳草勝花時者 誠非虛語也 環海三面 雖讓韜浦之通豁 長春四時 實是韜浦之所無 如論日東形勝 可謂與韜浦相伯仲矣 住持僧主忍, 又呈七絶一首 而乞和於三使 皆以走筆酬之 又以次南壺谷多字韻者留之 且以洛山寺畫本 以副前懇 因給紙筆墨及胡桃等物 先送人煮花 分嘗隨行諸人 此寺景致 足留一宿之緣 而以其非站所 故擧火前進 初更入江尻 山僧爲致謝意 隨後而來 復呈一詩矣 …."

59) 壺谷 南龍翼의 原韻詩는 "日落諸天路 風翻大海波 法緣憐始結 詩句記曾過 / 瀑布燈光亂 蒲團睡味多 客行留不得 其奈月明何"이다.

60) 경련(頸聯): 漢詩의 律・排律에서 제5・6의 頭句를 의미하는 것이다.

61) 『東槎酬唱錄』에는 趙曮・李仁培・金相翊・金仁謙・元重擧・成大中・洪善輔 등 7인의 五言律詩 1수씩이 수록되어 있으나, 『海槎日記』〈酬唱錄〉에는 製述官 南玉의 "淨界依蓮麓 高窓瞰雪波 樓臺詩卷在 今古使車過 花氣諸天暗 泉聲細雨多 前期知不遠 梅蕊更如何" 1수와 軍官 李海文의 "懸梯通佛路 寒磬響春波 仙掌霞初捲 梅花客暫過 境淸開地小 晴見得天多 笙鶴宜相待 王程有限何" 1수가 더 수록되어 있다.〈趙曮, 1763. 『海槎日記』. 酬唱錄. '駿河州淸見寺次南壺谷龍翼韻'條.〉

62) 趙曮, 1763. 『海槎日記』. 卷4. 甲申(1764)年 3月 20(辛未)日條. "晴 淸見寺中火 宿江尻 … 住持僧主忍, 又呈七絶一首 而乞和於三使 皆以走筆酬之 又以次南壺谷多字韻者留之 且以洛山寺畫本 以副前懇 因給紙筆墨及胡桃等物 先送人煮花 分嘗隨行諸人 此寺景致 足留一宿之緣 而以其非站所 故擧火前進 初更入江尻 山僧爲致謝意 隨後而來 復呈一詩矣 …."

63) 趙曮, 1763. 『海槎日記』. '酬唱錄'條.

www.kci.go.kr

39(1763)년 통신사의 정사였던 조엄의 일본 왕환기록(往還記錄)으로 그 중 〈수창록〉에는 조엄의 자작시를 비롯한 사행단의 제술관(製述官)・서기(書記)・군관(軍官)들과 함께 수창한 300여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동사수창록』에 수록된 시편들과 『해사일기』의 〈수창록〉에 수록된 동일 시편들과는 서로 자구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한편, 〈갑신삼월칠일전명우강호음위부사종사관급지문사구화〉와 〈십일일자강호회정득성자〉 및 〈청견사차남호곡운〉은 3월 19(경오)일에 준하주의 길원(吉原)에 머물면서 삼사와 4인의 문사 및 홍생(洪生) 등이 종사관 김상익의 방에 모여서 각기 8장씩을 써서 시축[64]을 만들어 분배하였던 것[65]이다.

5. 『동사수창록』의 작가별 시편

『동사수창록』에 수록된 시편은 조엄(4)・이인배(3)・김상익(3)・남옥(3)・성대중(4)・원중거(4)・김인겸(4)・홍선보(3) 등 8인의 도합 28수이다.

『동사수창록』에 수록된 시편들은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과 일본의 사정과 회한 및 감회 등을 읊은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작가 각자가 친필로 서사하고 낙관(落款)한 것을 후일에 장첩(裝帖)한 것으로 현재 대전선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5.1 조엄의 시편

조엄(趙曮, 1719-1777)은 영・정조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양(豊壤)이고 자는 명서(明瑞)이다. 호는 제곡(濟谷)・제암(濟庵)・영호(永湖) 등이고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영조(1752)년에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지평・수찬・교리・동래부사(東萊府使)・충청도암행어사를 거쳐, 영조 34(1758)년 이후로는 경상도관찰사・대사헌・부제학・승지・이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영조 39(1763)년에 통신사 정사로 일본을 다녀온 뒤로 대사간・한성부우윤・예조참판・공조참판・공조판서・이조판서・평안도관찰사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정조가 즉위(1776)하자 홍인한(洪麟漢)・정후겸(鄭厚謙) 등의 벽파(僻派)와 결탁하였다는 무고로 파직되고 탐재학민(貪財虐民)한 장리의 대표적 인물로 지목되어 평안도 위원(渭原)으로 유배되었다가 죽음을 면하고 경상도 김해로 이배되었으나, 실의와 불만 끝에 정조 원(1777)년에 병사하였다.

문장에 능하고 경사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경륜도 뛰어나고 민생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대마도에서 고구마[66]의

64) 『海槎日記』에는 "… 飯後 會從事房 招四文士及洪生 各書江戶傳命韻・回程韻・淸見寺韻 人各八張 成軸而分之 …"〈趙曮, 1763. 『海槎日記』. 卷4. 甲申(1764)年 3月 19(庚午)日條.〉라 하여 裝軸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裝帖되어 있다.

65) 趙曮, 1763. 『海槎日記』. 卷4. 甲申(1764)年 3月 19(庚午)日條. "晴 留吉原 所處館宇 北對富山 如在頂上 仰見山腰以上之雪 日來頗消 土色間見 而上層積厚者 猶如去時 直到盛夏 始盡消融云 益可驗其高峻也 飯後 會從事房 招四文士及洪生 各書江戶傳命韻・回程韻・淸見寺韻 人各八張 成軸而分之 他時披覽 怳如對面也 島主送言以爲前川舟橋明日當成 差晩發程云矣."

66) 濟州道에서는 고구마를 '趙藷'라 부르며, 고구마라는 말은 그가 지은 『海槎日記』에서 日本人이 이를 '古貴爲麻'라

www.kci.go.kr

종자를 가져와 그 보장법과 재배법을 보급함으로써 구황에 활용하도록 하였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조령을 넘으며〉[67]

하늘이 만든 중대한 관문 바로 조령이라
강회를 지켜낸 중국의 옛 휴양성 같도다
어쩌다 가만 앉아 금성탕지를 모두 잃고
공연히 행인에게 장단만 따지게 하시나!

〈강호에서 어명을 전달하며〉[68][69]

임금도 신하도 아니면서 위엄과 복을 지으니
관백이 도대체 무슨 벼슬인지 알 수 없어라
어찰을 친히 전할 적엔 마음이 부서지는 듯
임진년 옛일 추억하니 눈물만이 쏟아질레라!
동래시장의 삼초는 부질없는 무역품일 뿐
교릉의 송백엔 아직도 차디찬 봄인 것을
화융정책 본래부터 임금님 뜻 아닐진대
한 질의 춘추를 밤 이슥토록 읽노매라![70]

〈11일 강호에서 회정하면서〉[71][72]

봄바람에 소매 떨치며 강호성 벗어나니
돌아갈 만리 길이 다리아래 펼쳐지누나
군명을 선포하여 신하의 직분을 다하니
오랑캐도 느꺼워 크나큰 맹세 이루도다!
천층 험한 파도 어찌 남해를 꺼릴소인가
오색영롱한 서쪽하늘 구름은 기쁘려네라
사방으로 사신가는 사람 말 좀 들어보세
자모할 행동 없어야 국위가 행해지리다!

〈청견사에서 남호곡의 시에 차운하다〉[73][74]

해 돋는 동쪽에 자리한 청견사에는
문만 열면 만리 파도가 펼쳐지누나[75]
스님이 입정하자 흰 구름들 떠오르고
누각은 높아 나는 새조차 내려보누나
낙산사를 이처럼 그린다면 좋으려나!
한국의 사신은 시들을 많이 부쳤다오
풍광 밖의 일도 이야기 하고 싶으나
말이 사뭇 다르니 어찌 하오리이까!

고 부른다고 기록한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67)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過鳥嶺'條. "天作重關此鳥嶺 江淮遮遏古睢陽 如何坐失金湯勢 空使行人說短長."

68)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甲申三月七日傳命于江戶吟爲副使從事官及諸文士求和'條. "匪辟匪臣作威福 不知關白是何官 親傳御札心如碎 追憶辰年淚欲瀾 / 萊市蔘椒徒日易 喬陵松柏尙春寒 和戎本自非王意 一部麟書乙夜看."

69) 甲申三月七日傳命于江戶吟爲副使從事官及諸文士求和:『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江戶傳命'으로 기록되어 있다.

70) 趙曮, 1763.『海槎日記』. 卷4. 甲申(1764)年 3月 7(戊午)日條. "朝雨晩陰 留江戶 傳命于關白 … 顧謂副使曰 吾輩今行 依仰國書 七朔陪護之餘 遽爾傳命而歸 使事雖竣 心懷悵然 如有所失 副使曰誠然矣 傳命正堂也 …."

71)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條. "春風拂袖出江城 萬里歸程脚下生 君命獲宣臣職效 蠻心知感夏盟成 / 寧愁南海千層險 只喜西雲五彩明 寄語四方專對者 身無自侮國威行."

72) 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海槎日記』〈酬唱錄〉'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條에도 '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로 기록되어 있다.

73)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淸見寺次南壺谷韻'條. "日東淸見寺 門對萬重波 僧定白雲出 樓高飛鳥過 / 洛山同畫可 韓使寄詩多 欲說風光外 殊音奈爾何."

74) 淸見寺次南壺谷韻:『海槎日記』〈酬唱錄〉'駿河州淸見寺次南壺谷龍翼韻'條.에는 '駿河州淸見寺次南壺谷龍翼韻'으로 기록되어 있다.

75) 門對萬重波:『海槎日記』〈酬唱錄〉'駿河州淸見寺次南壺谷龍翼韻'條.에는 '門對萬里波'로 기록되어 있다.

www.kci.go.kr

5.2 이인배의 시편

이인배(李仁培, 1716-1774)는 영・정조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의(全義)이고 자는 수수(秀修)이며 호는 회계(廻溪)・길암(吉菴) 등이다.

영조 32(1756)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좌익선 등을 역임하면서 누차 경연에 참여하여 국왕을 보도하였다. 영조 38(1762)년에 독운어사(督運御史)로 북도(北道)에 파견되고 영조 39(1763)년에 수찬・부교리・교리 등을 역임하다 통신사의 부사로 일본을 다녀왔으며, 그 후로 승지・대사간・흡곡(恰谷)현령・예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학식이 높고 직언을 잘하였으며, 민생구제에도 노력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강호에서 어명을 전달하며〉[76]

처음 이름 회답사 지금은 통신사라니[77]
애써 화친하려한 한관이 부끄럽도이다
통역에만 의지하니 욕을 참는 일 많아[78]
마도정세 자못 험해 파란일까 두렵네![79]
해마다 교린하느라 인삼마저 없어지고
별 부딪는 무지갯빛 밤마다 싸늘하네
시인의 잠계는 예부터 너무 절실하여
이릉의 비바람 수심 속에 바라보노다![80]

〈11일 강호에서 회정하면서〉[81]

뿔피리소리 세번 울려 강호성을 떠나오니
길가의 가벼운 구름 말머리에 피어나도다
만리밖 윤음을 전달한 사신은 돌아가려나
백년이나 빛나던 덕이 화친을 맺는도이다![82]
한 바다 이를 적엔 마음이 먼저 취하더니
돌아갈 길을 꼽으니 눈이 문득 밝아지누나
우리임금 위령으로 마침내 성사한 일일진대
어찌 감히 나의 행실이 충신이었다 하리오!

〈청견사에서 남호곡의 시에 차운하다〉[83]

탑은 부용세계에 우뚝이도 치솟아 있고[84]
누문열자 만리 바다 파도와 마주 하네
고기잡이배는 연파 밖에서 되돌아오고
사신의 행차는 빗속 지나는 중이라네!
새 매화 곱게 피어 온 땅에 가득하고
하늘에 닿을듯 고목들 많기도 하이다
다른 나라로 들어와 물색을 읊게 되니[85]
나그네의 고향 시름을 어찌 하오리이까!

---

76)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甲申三月七日傳命于江戶吟爲副使從事官及諸文士求和'條. "始名回答今通信 辛苦和戎愧漢官 象譯徒憑多忍垢 馬蠻難測恐推瀾 / 交隣蔘貨年年盡 衝斗虹光夜夜寒 從古詩人箴戒切 二陵風雨帶羞看."

77) 始名回答今通信:『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使名回答更通信'으로 기록되어 있다.

78) 象譯徒憑多忍垢:『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象舌徒凭多忍垢'로 기록되어 있다.

79) 馬蠻難測恐推瀾:『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馬情殆甚恐推瀾'으로 기록되어 있다.

80) 二陵風雨帶羞看:『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二陵風雨帶愁看'으로 기록되어 있다.

81)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條. "三聲畫角出江城 夾路輕雲馬首生 萬里宣綸廻使傳 百季耀德講隣成 / 曾臨滄海心先醉 却數歸程眼忽明 自是君靈終有濟 敢言忠信仗吾行."

82) 百季耀德講隣成:『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百年耀德講隣成'으로 기록되어 있다.

83)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淸見寺次南壺谷龍翼韻'條. "塔湧芙蓉界 樓開日月波 漁舟煙外返 征節雨中過 / 滿地新梅好 參天古木多 殊方題物色 其奈客愁何."

84) 塔湧芙蓉界:『海槎日記』〈酬唱錄〉'駿河州淸見寺次南壺谷龍翼韻'條에는 '塔聳芙蓉界'로 기록되어 있다.

85) 殊方題物色:『海槎日記』〈酬唱錄〉'駿河州淸見寺次南壺谷龍翼韻'條에는 '殊邦題物色'으로 기록되어 있다.

www.kci.go.kr

5.3 김상익의 시편

김상익(金相翊, 1722-1781)은 영・정조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자는 중우(仲祐)이며, 호는 현암(弦庵)・석림산인(石林散人) 등이다.

영조 35(1759)년에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왕실과 혼인한 배경으로 사헌부와 홍문관의 청요직을 두루 거쳐 영조 39(1763)년에 통신사의 종사관에 발탁되어 일본을 다녀온 뒤 성균관대사성・홍문관부제학・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한때 부정과 탐학으로 탄핵을 받고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청주로 귀양을 가기도 하였다. 정조 즉위(1776)년에 벽파인 홍인한・정후겸 등의 역모에 가담하였다는 양사의 집요한 탄핵을 받았으며, 정조의 비호로 대사헌에 기용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정조 원(1777)년에 지도(智島)에 유배되고 유배지에서 졸거하였다.

〈강호에서 어명을 전달하며〉[86]

빛나는 슬갑 속 깨끗한 나의 패물이여
왜궁에 행례하는 세 사신이 부끄럽도다
원추의 세상에 나라원수도 잊을 소인가
거센 파도 무릅쓰고 사절단이 오가도다!
천지에 봄 와도 능의 나무는 늙어 있고
산하와 사람들은 검광 꽃으로 싸늘하네[87]
서성대며 기어이 초연의 시부 지을진대
유월의 시장은 정신을 차려 봐야겠도다!

〈11일 강호에서 회정하면서〉[88]

왜국에 오래 있다가 성문을 나서려나니
말 앞의 방초들 무럭무럭 자라났도이다
육천리도 넘는 길 처음으로 돌아보나니
십칠년 사이 두 번째 화친을 이룬도다!
등 뒤 누대는 가물가물 감춰져 버리고
눈앞 바다는 공명에 싸여 있으련도다
이제부턴 유흥을 방해할 일 없으려니
다시 옛 절로 가 매화를 찾아보련다![89]

〈청견사에서 남호곡의 시에 차운하다〉[90]

숲속 거닐자 잇따라 취미가 생겨나니
오래도록 배만 타서 풍파에 시달린도다
육오의 등에 업혀 누각들은 떠있는 듯
사모가 지나가니 승려들도 환영하도다!
꽃 속에 숨은 폭포소리 아스라이 들리고
청산 가까워 구름 구경은 많이도 하도다
눈을 들어서 하늘 동쪽 끝을 바라보나니
부상은 아직도 얼마만큼 남았으려이까!

5.4 남옥의 시편

남옥(南玉, 1722-1770)은 영・정조조의 문신

86)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甲申三月七日傳命于江戶吟爲副使從事官及諸文士求和'條. "我芾煌煌我佩潔 蠻宮賓禮愧三官 國讐可忘猿酋世 使節猶通鰐海瀾 / 天地春回陵樹老 山河人倚劒花寒 徘徊强欲初筵賦 六月詩章致意看."

87) 山河人倚劒花寒: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山河久倚劒花寒'으로 기록되어 있다.

88)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條. "久滯蠻鄉一出城 茸茸芳草馬前生 六千里外程初返 十七年中聘再成 / 背送樓臺藏縹緲 迎來滄海積空明 更無餘事妨遊興 重擬青梅古寺行."

89) 重擬青梅古寺行: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重擬尋梅古寺行'으로 기록되어 있다.

90)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淸見寺次南壺谷韻'條. "林行轉生趣 舟楫久風波 樓泛六鰲戴 僧迎四牡過 / 花深聽瀑迥 山近見雲多 縱目天東極 扶桑且幾何."

www.kci.go.kr

으로 본관은 의령(宜寧)이고 자는 시온(時韞)이며 호는 추월(秋月)이다.

영조 16(1740)년에 해주에서 과거공부를 하다 춘천과 강릉 등지로 이거하면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으나, 영조 29(1753)년에 정시문과에 합격하였다. 영조 39(1763)년에 통신사의 서기로 일본을 다녀온 뒤 수안(遂安)군수에 임명되었으나, 영조 46(1770)년에 최익남(崔益男)의 옥사에 연루되어 투옥된지 5일 만에 매를 맞아 졸거하였다. 그의 시는 김창흡(金昌翕)과 육유(陸游)를 추종하여 서정성이 강하였으며, 그의 문은 당송고문의 경향이 짙었다. 일본을 다녀와 『일관시초(日觀詩草)』·『일관창수(日觀唱酬)』·『일관기(日觀記)』·『할반록(割胖錄)』 등 방대한 저술을 남겼으며, 이들은 『해행총재(海行摠載)』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조엄의 『해사일기』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령을 넘으며〉[91]

삼남의 도회지이며 왜인을 막는 울타리라
천리를 휘감고 돌아 한양을 옹위하였네라
배수진 두른 것은 천험을 상실한 탓이리라
신장군의 시비만이 길이 남아 있으려네라!

〈강호에서 어명을 전달하며〉[92]

지함을 손으로 받들자 머리칼이 치솟고
백년의 훈육 앞에선 주관도 부끄러웁네
소화에선 춘추를 읽을 만한 곳도 없고
한강 물은 밤낮 물결만 용솟음치노라!
월치를 생각하면 누군들 눈물 아니 나랴
초맹도 뜻이 많아 저버리기 어렵도이다
원가의 도병이 오래 가지 못하리려나니
늙은 천랑이 칼에 기대서서 보고 있네![93]

〈11일 강호에서 회정하면서〉[94]

삼순만에 처음으로 무주성문 떠나오니
동해사 앞길은 낯설지도 아니하도이다
밤낮 윤침은 되돌아갈 곳 가리키려니[95]
상자 속 봄옷은 지난해에 만든 것일세![96]
시냇가 꽃들은 비에 젖은 듯 남아 있고
포구의 돛은 바람실려 안계가 밝아지네[97]
만고 겪던 일 모두 잊어질 이 기쁨이여
만리 바닷길도 이런 마음으로 가리련다!

5.5 성대중의 시편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은 영·정조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자는 사집(士執)이며 호는 청성(靑城)·순재(醇齋)·용

91)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過鳥嶺'條. "三南都會百蠻障 千里周遭拱漢陽 背水知緣初失險 獨憐申帥是非長."

92)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甲申三月七日傳命于江戶吟爲副使從事官及諸文士求和'條. "手捧芝函危髮豎 百年獯鬻愧周官 小華無讀春秋地 淸漢空鳴日夜瀾 / 越恥在心誰不涕 楚盟多意亦難寒 源家倒柄應非久 衰旺天狼倚釗看."

93) 衰旺天狼倚釗看: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衰枉天狼倚劒看'으로 기록되어 있다.

94)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條. "三旬初出武州城 東海寺前路不生 日下輪針歸處向 篋中春服去季成 / 溪花着雨留相待 浦颿乘風望忽明 一喜渾忘經百苦 雲濤萬里此心行."

95) 日下輪針歸處向: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日夜輪針歸處向'으로 기록되어 있다.

96) 篋中春服去季成: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篋中春服去年成'으로 기록되어 있다.

97) 浦颿乘風望忽明: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浦帆乘風望忽明'으로 기록되어 있다.

www.kci.go.kr

연(龍淵) 등이다.

영조 29(1753)년에 생원이 되고 영조 32(1756)년에 정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서얼이었으나 영조의 탕평책에 의한 서얼통청운동에 힘입어 청직(淸職)에 임명된 상징적 인물이다. 영조 39(1763)년에 통신사의 서기로 일본을 다녀온 뒤 정조 8(1784)년에 흥해(興海)군수가 되는 등 정조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신분적인 한계에 묶여 부사의 벼슬에 그치고 말았다. 낙론계열 성리학자로 당대의 시대사상인 북학사상에 경도하여 홍대용・박지원・이덕무・유득공・박제가 등과 교유하면서 이들에게 가학(家學) 및 스승 김준(金焌)에게서 전수받은 상수학적(象數學的) 학풍을 발전적으로 계승・전달하여 북학사상의 형성에 일조하였다. 그는 정조조의 문체반정정책에도 적극 호응하여 북학파와 다른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청성집(靑城集)』이 있다.

〈조령을 넘으며〉[98]

천제와 석잔이 한결같이 남쪽으로 향하여
안팎의 중관으로 한양을 보호하고 있다네
승부는 지리로만 판가름 나지 않으리로니
달천 흐르는 물에 속절없이 한만 길어지네!

〈강호에서 어명을 전달하며〉[99]

위타의 궁중에다 황제의 조서를 전달하니
옥패와 금관도 한결같이 한관의 위의로다
폐백도 부질없어 국고만 손실될 뿐이려니
한 바다 물결로도 이 원한은 씻기 어렵네![100]
썩은 선비는 눈물 흘리며 춘추를 덮나니
장수는 공훈이 없어 용천검도 싸늘하네[101]
갖은 고생 겪으면서 왕사를 다 마쳤으니
돌아가는 꿈속에서 오색구름 보리련도다![102]

〈11일 강호에서 회정하면서〉[103]

봄비 부슬부슬 섬나라에도 내리고 있는데
사신 행차 돌아가는 날 온갖 꽃 피어나네[104]
기러기 나는 길가엔 시름 문득 덜어지려니
말 위에서 시를 지어 기쁨을 적어 보노다!
품속이 무거운 것은 형벽을 되찾은 것일지며
낭탁이 깨끗하니 월주를 어디에다 쓰리오까
돌아갈 때는 험한 파도 평온할 줄 믿으려니
자유로 떠나는 조각배를 보시게나 그려![105]

〈청견사에서 남호곡의 시에 차운하다〉[106]

불연이 청정한 땅에 머무르고 있으니
누대의 그림자도 푸른 파도에 떠있네

98)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過鳥嶺'條. "天梯石棧盡南向 表裏重關護漢陽 勝負初非緣地利 猛川流水恨空長."

99)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甲申三月七日傳命于江戶吟爲副使從事官及諸文士求和'條. "老佗宮裏宣皇詔 玉珮金冠儼漢官 好幣謾空中國帑 深羞難洗大溟瀾 / 腐儒有淚麟經閉 壯士無功龍釼寒 艱險閱來王事了 五雲歸路夢中看."

100) 深羞難洗大溟瀾: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深羞難洗大溟瀾'으로 기록되어 있다.

101) 壯士無功龍釼寒: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壯士無功龍劒寒'으로 기록되어 있다.

102) 五雲歸路夢中看: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五雲歸路馬前看'으로 기록되어 있다.

103)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條. "春雨霏微枕海城 使車迴日百花生 鴻邊道路將愁減 馬上詩篇志喜成 / 懷重祗看荊璧返 槖淸安用越珠明 鯨濤可驗歸時穩 野渡輕舟自在行."

104) 使車迴日百花生: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使車回日百花生'으로 기록되어 있다.

105) 野渡輕舟自在行: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野渡扁舟自在行'으로 기록되어 있다.

106)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淸見寺次南壺谷韻'條. "佛緣留淨地 樓影泛蒼波 雪衲携詩待 星軺帶雨過 / 瀑流層壁近 梅樹一庭多 更證雲林約 歸時定若何."

www.kci.go.kr

설납은 시권을 손에 들고 기다리는데
사신의 가마는 비를 맞으며 지나가네!
층벽에서 떨어지는 폭포는 가직하고
온 뜰에는 매화나무가 많기도 하구나
운림의 언약을 다시금 다짐하려나니
돌아가는 시기는 언제쯤 이오리이까!

5.6 원중거의 시편

원중거(元重擧, 1719-1790)는 영・정조조의 문신으로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자는 자재(子才)이며 호는 현천(玄川)・손암(遜菴)・물천(勿川) 등이다.

그는 성당(盛唐)의 넉넉한 시풍과 청신한 시어를 특징으로 하는 뛰어난 시작의 역량을 발휘하여 영조 39(1763)년에 통신사의 서기로 일본을 다녀왔으며, 그 뒤 잠시 송라도찰방(松羅道察訪)을 역임하다 선영이 있는 용문산 아래에 은거하였다. 그는 이덕무・성대중・박제가・유득공・홍대용・황윤석・남공철・윤가기 등과 교유하였으며, 옛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 세속의 명리와는 타협하지 않아 젊은 지식인들의 존장으로 존경을 받았다. 통신사행에서 일본의 여러 문사들과 교유하는 한편 그곳의 학술과 문예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화국지(和國志)』와 『승사록(乘槎錄)』 등을 저술하였다.

〈조령을 넘으며〉[107]

하회일의 높은 우듬지에 새 다니는 길 하나
뭇 봉우리 빼어나 음양만 갈라놓을 뿐일레라
성조에는 원래 천험조차 쓸데없는 것이나니
국운이 장원하기는 덕에 달렸을 뿐일레라!

〈강호에서 어명을 전달하며〉[108]

어룡의 물결 속에는 공왕의 나라 있으려니
매화버들 병풍 앞 물귀신 같은 관리들이여
언젠가 주나라에서 아끼던 말을 내버리니[109]
마침내 월해엔 파란이 잠잠해지련도이다![110]
하늘에 낀 신기는 누각의 환영으로 바뀌고
별 부딪는 무지개는 칼 빛처럼 싸늘하도다
백년성대에도 승산이라곤 전혀 없었으려니
정세의 허실이나 자세하게 살펴보리련도다!

〈11일 강호에서 회정하면서〉[111]

인삼이 무슨 명목으로 성문을 드나드나[112]
조복 입은 서생이 스스로 부끄럽도이다
송실은 백년동안 요와의 맹약을 따랐고
구원갚은 제양공은 기의 화친 참았다오!
기미성은 몇 번이나 태세에 돌아왔으나[113]
천지에는 황명위해 곡할 곳조차 없다네

107)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過鳥嶺'條. "廻日高標一鳥道 萬峰挺拔割陰陽 聖朝設險元無用 觀國隆都德與長."

108)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甲申三月七日傳命于江戶吟爲副使從事官及諸文士求和'條. "魚龍浪裏空王國 梅柳屛前水怪官 長使周家捐玉馬 纔敎越海息波瀾 / 迷天蜃氣樓方幻 衝斗虹光釗欲寒 聖代百年無勝算 且將虛實入詳看."

109) 長使周家捐玉馬: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長使周家捐玉帛'으로 기록되어 있다.

110) 纔敎越海息波瀾: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才敎越海息波瀾'으로 기록되어 있다.

111)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條. "蔘幣何名入出城 朝衣還自愧書生 百年宋室循遼約 九世齊襄忍紀成 / 箕尾幾番廻太歲 乾坤無處哭皇明 空敎十幅蠻郞畫 文物儀容寫陸行."

112) 蔘幣何名入出城: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蔘幣何名入武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113) 箕尾幾番廻太歲: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箕尾幾番廻大歲'로 기록되어 있다.

www.kci.go.kr

부질없이 십폭 왜인들의 그림 위에다
육행하는 문물과 의용만을 그리련다오!

〈청견사에서 남호곡의 시에 차운하다〉[114]
동해의 막바지에 부사산 우뚝 솟아서
선루가 창파를 관리하는 듯도 하도다
곤어와 붕조는 난간 앞에 나타나려니
해와 달은 주렴을 스쳐 지나리련도다!
빗방울 성글자 샘물 소리는 생동하고
깊숙한 운림 속엔 불영조차 많도이다
황화의 사명을 매화가 알아줄 터이니
고금을 비교하면 생각이 어떠하오이까!

5.7 김인겸의 시편

김인겸(金仁謙, 1707-1772)은 영조조의 문인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자는 사안(士安)이며 호는 퇴석(退石)이다.

14세 때인 숙종 46(1720)년에 부친을 사별하고 가난으로 학문에 전념하지 못하다가 47세 때인 영조 29(1753)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며, 57세 때인 영조 39(1763)년에 통신사의 종사관인 김상익의 서기로 일본을 다녀왔다. 이때의 기행사실을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라는 가사로 남겼으며, 저술로는 『동사록(東槎錄)』이 있다.

〈조령을 넘으며〉[115]
공중에 달린 오솔길 양장보다 더 험하고
거꾸로 꽂힌 창애에는 석양이 걸렸어라
한 사람이라도 먼저 요새를 웅거했던들
당시에 행장을 손쉽게 사로잡았을 것을!

〈강호에서 어명을 전달하며〉[116]
황파는 관백에게 받들어 전달하자
화균장자 아래로 만관들 도열하네
송백릉 앞을 차마 어찌 지나왔나
임진난리 뒤밟아 온 것 부끄럽네!
벽혜의 관 밑에는 백발이 치솟는데
신교의 갑 속엔 무지갯빛 차가워라
해 지나 비로소 회답 가지고 가니
비총의 수운을 눈물로 바라보도다!

〈11일 강호에서 회정하면서〉[117]
강주의 새벽비가 쌓인 시름을 씻어주니
월탁이 스산하여 상쾌한 기분이 나도다
해 넘긴 묵은 병이 갑자기 없어진 듯이
어젯밤 고향 가는 꿈을 처음 꾸었도다!
하늘 닿은 넓은 바다 가슴 활짝 열리고
길옆에 꽃이 피니 눈이 문득 밝아지도다
여린 녹색 붉은빛 어울리는 현성원으로[118]
봄바람 나를 보내 수레를 재촉하도이다!

---

114)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淸見寺次南壺谷韻'條. "富嶽窮東海 禪樓領漫波 鯤鵬當檻出 烏兎半簾過 / 疏雨泉聲活 幽林佛影多 皇華梅樹識 今古意如何."

115)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過鳥嶺'條. "懸空細路劇羊腸 倒插蒼崖掛夕陽 若使一夫先據險 當時容易馘行長."

116)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甲申三月七日傳命于江戶吟爲副使從事官及諸文士求和'條. "黃帕擎傳關白所 畫筠障下列蠻官 忍過松柏陵前路 愧涉龍蛇劫後瀾 / 碧蕙冠中華髮竪 神蛟匣裡紫虹寒 經年始得回書去 鼻塚愁雲淚眼看."

117)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 『東槎酬唱錄』. '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條. "江州曉雨滌愁城 越橐蕭然快意生 經歲沈痾疑忽去 前宵歸夢喜初成 / 連天海闊心同豁 挾路花開眼共明 嫩綠繁陰玄性院 春風催送小輿行."

118) 嫩綠繁陰紅性院: 『海槎日記』〈酬唱錄〉 '江戶傳命'條에는 '嫩綠繁紅玄性院'으로 기록되어 있다.

www.kci.go.kr

〈청견사에서 남호곡의 시에 차운하다〉[119]
매화 향기 부처님 뼛속까지 스며드는데
절 그림자는 유유히 바다에 떨어지도다
불법의 세계는 삼천이나 열려 있으려나
사신의 배는 열한 번을 지나갔던도이다
폭포소리 죽림 사이로 아스라 들리는데
용기운은 무럭무럭 주렴 뚫고 드는도다
사문 밖에서는 문득 슬프디 슬픈 생각[120]
더욱이 부슬비로 지체됨은 어찌하리오![121]

5.8 홍선보의 시편

홍선보(洪善輔, ?-?)는 영조조의 문인으로 자는 성노(聖老)이고 호는 묵재(默齋)이다. 영조 39(1763)년에 통신사의 반인(伴人)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강호에서 어명을 전달하며〉[122]
주폐를 들고 와서 위강의 계책을 쓰려니
상관과 중관은 춘추조차 읽지 않으련가
전루도 많았던 임진년 차마 말로 다하랴
어해에 씻은 칼날이 어찌 이리 무디련가!
만리라 성사에는 통신의 길 멀기도 먼데
이릉의 비바람은 수치 속에서 차갑도다[123]
임금의 명령 전달하여 완벽을 기대하여
억지로 빈연에 나가 눈물 가리고 보노라![124]

〈11일 강호에서 회정하면서〉[125][126]
시서를 말아들고 기쁘게 성문을 나와[127]
고향을 바라보니 바다구름 자욱하도다
신선놀음 할 만하여 봄은 늦어지고[128]
인국과의 맹약에 예도 이미 행한도다!
가랑비 부슬부슬 일천봉우리 아득하고
계절 꽃은 곱디고와 온 숲이 환하도다
마지막 구경은 어디메로 결정하리련가
가는 길엔 고사에도 들려 보련도이다!

〈청견사에서 남호곡의 시에 차운하다〉[129]
하늘을 범할 듯 높이 솟은 저 누각
해 목욕하는 물결에 닿아 있는도다
나그네 앉은 자리엔 흰 구름 일고
신선이 떠난 뒤 황학이 아득하도다!

---

119)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淸見寺次南壺谷韻'條. "梅香透佛骨 寺影落鯨波 法界三千闢 仙槎十一過 / 瀑聲穿竹遠 龍氣入簾多 怊悵沙門外 停驂奈雨何."
120) 怊悵沙門外: 『海槎日記』〈酬唱錄〉'駿河州淸見寺次南壺谷龍翼韻'條에는 '立馬沙門外'로 기록되어 있다.
121) 停驂奈雨何: 『海槎日記』〈酬唱錄〉'駿河州淸見寺次南壺谷龍翼韻'條에는 '詩愁奈雨何'로 기록되어 있다.
122)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甲申三月七日傳命于江戶吟爲副使從事官及諸文士求和'條. "周幣來修魏絳策 春秋不讀上中官 龍年忍說郊多壘 魚海空遲釼洗瀾 / 萬里星槎通信遠 二陵風雨帶羞寒 謾傳君命要完璧 强赴賓筵掩涕看."
123) 二陵風雨帶羞寒: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二陵風雨帶愁寒'으로 기록되어 있다.
124) 强赴賓筵掩涕看: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欲赴賓筵掩涕看'으로 기록되어 있다.
125)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十一日自江戶回程得成字'條. "忙卷詩書喜出城 故鄕西望海雲生 神仙可債春將晩 江國申盟禮已成 / 細雨霏微千嶂遠 閑花窈窕一林明 分留物色期何處 古寺歸程更促行."
126)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作家名의 기록이 없다.
127) 忙卷詩書喜出城: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忙捲詩書喜出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128) 神仙可債春將晩: 『海槎日記』〈酬唱錄〉'江戶傳命'條에는 '神仙了債春將晩'으로 기록되어 있다.
129)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淸見寺次南壺谷韻'條. "高出凌霄閣 平臨浴日波 白雲生客坐 黃鶴杳仌過 / 梅柏三春覺 烟霞十景多 皇華留大筆 藻思續陰何."

www.kci.go.kr

매백은 마침 삼춘을 한껏 느끼는데[130)]
연노을 피는 승지는 십경처럼 많도다
황화의 사신이 대필을 남겼으려나니
시술은 음하의 옛 솜씨 잇듯하도다!

6. 결 론

이상에서 영조 39(1763)년에 파견된 통신사의 개괄과『동사수창록』에 수록된 시편들에 관하여 고찰한 바,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통신사는 조선에서 일본의 막부장군에게 파견한 공식적인 외교사절로 고려시대 말기에서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2) 통신사절단에 참여한 인사들은 일본 현지에다 서화・시문 등 많은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귀국 후 일본에서 겪은 견문들을 각종의 기록으로 남겨, 당시 양국간의 외교적인 역할 및 문화교류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영조 계미(1763)년의 통신사절은 삼사를 비롯한 도합 483명으로 구성되어 동년 8월 3일에 사조(辭朝)하고 이듬해(1764) 2월 16일에 강호에 도착한 뒤 2월 27일에 신임 관백 원가치에게 국서를 전달하였으며, 동년 3월 11일에 강호로부터 회정하여 6월 22일에 부산에 도착한 뒤 7월 8일에 경희궁에 들어가 복명하기까지 무려 332일 동안 1만여 리를 순행한 사행이었다.

(4)『동사수창록』에는〈과조령〉・〈갑신삼월칠일전명우강호음위부사종사관급제문사구화〉・〈십일일자강호회정득성자〉・〈청견사차남호곡운〉 등 4제에 걸쳐 조엄(4)・이인배(3)・김상익(3)・남옥(3)・성대중(4)・원중거(4)・김인겸(4)・홍선보(3) 등 8인의 도합 28수의 수창 시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5)『동사수창록』에 수록된 시편들은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과 일본과의 사정과 회한 및 감회 등을 읊은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작가 각자가 친필로 서사하고 낙관한 것을 후일에 장첩한 것으로 현재 대전선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6)『동사수창록』에 수록된 시편들의 내용과 각 작가들의 위상 및 작가 친필본임을 고려할 때, 본『동사수창록』은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 고 문 헌

[1] 任守幹 外. [筆寫年不明].『東槎日記』,〈卷乾〉. 筆寫本.
[2] 鄭麟趾 外. [發行年不明].『高麗史』.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81.
[3] 趙曮, 1763.『海槎日記』, 卷1-4.〈酬唱錄・使行名單・路程記〉. 筆寫本.

130) 梅柏三春覺:『海槎日記』〈酬唱錄〉'駿河州淸見寺次南壺谷龍翼韻'條에는 '梅柏三春半'으로 기록되어 있다.

www.kci.go.kr

[4] 趙曮 外. 1763-1764[英祖 39-40].『東槎酬唱錄』. 筆寫(親筆)本. [鳥嶺, 吉原]: [趙曮 等 筆寫]. 大田先史博物館所藏.

[5] 春秋館, [發行年不明]. 國史編纂委員會, 1986.『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定宗實錄・太宗實錄・世宗實錄・世祖實錄・成宗實錄・宣祖實錄・仁祖實錄・孝宗實錄・肅宗實錄・英祖實錄・純祖實錄〉.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Im, Su-Gan, *et al.* [n.d]. *Dongsailgi*, vol.1(geon). manuscript.

[2] Jeong, In-Ji, *et al.* [n.d]. *Goryeosa*. photographic edition. Seoul: Gyeongin-munhwasa, 1981.

[3] Jo, Eom, 1763. *Haesailgi.*, vol.1-4. *Changsurok, Saheangmyeongdan, nojeonggi*. Manuscript.

[4] Jo, Eom, *et al.* 1763-1764[Yeongjo 39-40]. *Dongsasuchangrok*. manuscript. [Joryung]: [Manuscript written by Jo Eom et al.].

[5] Chunchugwan, [n.d].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986.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photographic edition. Seoul: Tamgudang.〈*Jeongjong Sillok, Taejong Sillok, Sejong Sillok, Seongjong Sillok, Sejo Sillok, Seongjong Sillok, Seonjo Sillok, Injo Sillok, Hyojong Sillok, Sukjong Sillok, Yeongjo Sillok, Sunjo Sillok*〉.

www.kci.go.kr